손흥민, 2019년 최고의 선수 19위

英가디언 선정, 전세계 축구 선수 대상 톱100

1위 리오넬 메시…반다이크 · 마네 · 호날두 순

손흥민(27 · 토트넘)이 2019년 최고의 선수 19위에 선정됐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20일(한국시간) 전세계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2019년 '톱 100'을 추렸다.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 중 해리 케인(15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9위로 뽑혔다.

가디언은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15~16골을 넣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 중"이라고 손흥민을 평가했다.

또한 최근 번리전에서 선보인 70m 단독 질주 골 등 손흥민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1위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뽑혔다. 버질 반다이크, 사디오 마네(이상 리버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리버풀의 선수들이 3명이나 '톱5'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마네와 살라는 공격을, 반다이크는 수비를 각각 이끌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망),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르 뮌헨), 라힘 스털링(맨체스터시티), 알리송(리버풀), 프렌키 데용(바르셀로나)이 6~10위에 포진했다.

세계적인 골잡이들이 손흥민의 뒤로 밀렸다. 카림 벤제마(레알마드리드)는 20위, 안토니오 그리에즈만(바르셀로나)은 25위,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는 26위,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망)는 31위에 그쳤다.

손흥민(27 · 토트넘)이 영국 유력지 가디언이 선정한 2019 최고의 선수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 메인 카드 페더급 경기에서 정찬성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하고 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화끈한 승리 후 안와골절 후유증 고백

'코리안 좀비' 정찬성(32 · 코리안좀비MMA)이 프랭키 에드가(38 · 미국)를 상대로 1라운드 4분만에 TKO승을 거둔 가운데 경기 후 안와골절 수술 부작용 사실을 털어놨다.

정찬성은 지난 2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 메인 이벤트에서 에드가에게 1라운드 TKO승을 거뒀다.

종합격투기(MMA) 전적 23승1무7패를 기록 중이던 '베테랑' 에드가에게 따낸 값진 승리와 함께 정찬성은 통산 전적 16승5패(UFC 6승2패)를 마크했다. 무엇보다 홈 팬들 앞에서 거둔 통쾌한 승리라 더 의미가 깊었다.

이날 경기 후에는 뜻밖의 소식도 전해졌다. 정찬성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안와골절 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한 것. 안구를 둘러싼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를 뜻하는 안와골절로 인해 정찬성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찬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히며 2020년 5~6월 이후에는 다시 경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찬성은 국내팬들의 뜨거운 열기에 거듭 감사해한 뒤 앞으로의 활약도 다짐했다.

한편, 정찬성의 다음 시선은 현 페더급 챔피언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호주)로 향할 전망이다. 전날 승리로 볼카노프스키와 타이틀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에 한걸음 더 다가선 정찬성은 경기 후 링 위에서 가진 인터뷰 당시 "아이 원트 볼카노프스키(볼카노프스키와 싸우고 싶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뉴스1

리버풀 또 '몰상식'

클럽월드컵 우승 후 전범기 이미지 올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욱일기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 왔다.

리버풀은 2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라멩구(브라질)와의 2019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전반 9분에 터진 호베르투 피르미누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클럽 역사상 첫 대회 우승과 함께 리버풀은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UEFA 슈퍼컵 그리고 클럽월드컵 트로피를 모두 들어 올리는 겹경사를 누렸다. 리버풀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한국의 팬들은 분노했다.

우승 후 리버풀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에는 성과를 자축하는 이미지가 게재됐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지구와 클럽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문제는 배경이었다. 클럽 감독 뒤로 햇살이 퍼져 나가는 그림이 새겨졌는데 전범기 특유의 디자인이었다.

리버풀은 지난 20일 일본 선수 미나미노 다쿠미 영입을 알리는 영상을 게재하는 과정에서도 전범기를 노출 시켜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한국 팬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게시물에서 전범기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FA대어, 류현진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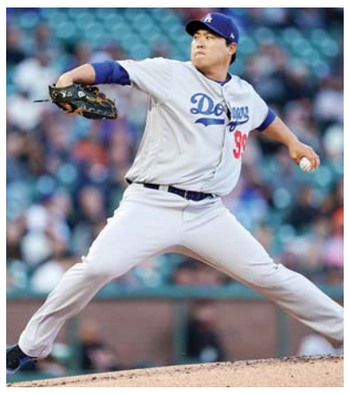
카이클,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4년 7400만 달러 계약

FA 대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좌완 선발투수 댈러스 카이클(31)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계약을 맺었다.

ESPN과 MLB.com 등 현지언론은 22일(한국시간) "카이클이 화이트삭스와 4년간 7400만 달러(한화 약 859억원)에 계약했다"라고 전했다. 3년간 5500만 달러(한화 약 638억원)가 보장되며 4년째는 베스팅 옵션 형태로 진행되는 계약이다.

지난 2015시즌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한 카이클은 최근 몇 년 메이저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좌완투수 중 한 명이다. 지난해 말 FA 자격을 획득했으나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시즌 중반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했고 6월에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1년 1300만 달러 단기계약을 맺었다.

이후 올 시즌 19경기에 나서 8승 8패 평균자책점 3.75를 기록했다.



시즌 후에 다시 한 번 FA 자격을 행사한 카이클은 마침내 선발투수가 필요한 화이트삭스와 장기계약에 성공했다.

카이클은 최근까지 시장에 남아 있는 선발투수 FA 중 류현진과 함께 최대어로 꼽혔다. 두 선수가 스캇 보라스를 에이전트로 두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카이클이 계약하면서 시장에 남은 대형 선발투수 FA는 류현진 뿐이다.

라파엘 나달,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우승

라파엘 나달(세계랭킹 1위 · 스페인)이 이벤트 대회인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22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그리스의 스타포노스 치치파스(6위)에 2-1(6-7 7-5 7-6)으로 승리했다. 나달의 이 대회 5번째 우승.

나달은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를 잡고 승부를 3세트로 끌고 갔다.

끝까지 쉽지 않은 승부였다. 나달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이 브레이크를 허용했다. 그러나 타이 브레이크에서 7-3으로 치치파스를 압도, 우승 상금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손에 넣었다.

이 대회는 일부 초청 선수들이 경쟁하는 이벤트 대회다.